

2015 SJE International Symposium



2015년 10월 30일과 31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 주최로 ‘제 23회 SJE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아시아 기업과 혁신’이란 주제로 이틀간 6개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기업의 성과와 기술혁신에 대한 총 13개의 연구 발표가 심도 깊게 이뤄졌다.

본 학술행사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의 “Comparative Perspectives on Business groups in Korea, Japan, and China”라는 연구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인도 펀자브대(Punjab University, India)의 Lakhwinder Singh교수와 Aniuta Gill교수가 “Emergence of Innovative Manufacturing Firms and across Asian Countries”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히토쓰바시대(Hitotsubashi University)의 교지후카오(Kyoji Fukao)교수와 니혼대(Nihon University)의 권형욱 교수가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 Comparis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and Japan”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 서강대의 전현배 교수가 “Can the Property Rights Theory Explain Cross-Border Vertical Integration of Multinational Firms? Firm-level Evidence in Korea”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의 오준병 교수가 “Financial Market Reaction and Prediction in Patent Litigations: A case study for South Korea” 연구를 설명하였고, 뒤이어 한국해군사관학교의 추기능 교수가 “Academic Advisors and their Ex-graduate Students: A Channel of Knowledge Diffusion”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첫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도쿄대(The University of Tokyo)의 가즈유키 모토하시(Kazuyuki Motohashi) 교수가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 first look at linkage data of Japanese patent

and enterprise census”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대 임지선 박사과정생이 “Does innovation create jobs: Evidence from the Korean Industry”를 발표하였다.

다음날은 오전에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첫 세션에서는 도쿄대(The University of Tokyo)의 다카히로 후지모토(Takahiro Fujimoto)교수가 “Design-Flow-Based Concept of Manufacturing: Capability, Architecture, and Competitiveness”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현태 박사가 “Causes for Changing Performance of Ownerships in China”를 설명하였다.

이번 학술행사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쿠슈인대(Gakushuin University)의 스토무 미야가와(Tsutomu Miyagawa) 교수가 “Is Productivity Growth Correlated with Improvements in Management Quality? An empirical study using interview surveys in Korea and Japan”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의 조성욱 교수와 인하대의 정진영 교수가 “When Are Friendly Outside Directors Beneficial to Firms?”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대 임부루 박사과정생의 “Are Korean firms catching up with, and thus getting similar to, the American firms” 연구 발표로 끝이 났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이전과 달리 학계의 유명 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 박사과정 학생들을 비롯하여, 여러 학생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예년과 같이 향후 SJE의 특별판에 실려 국내 및 국외에 배포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SJE의 SSCI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아시아 경제성장과 관련 분야 국내 외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SNU Workshop on Advances in Time Series Analysis

2015년 9월 10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655호에서 Advances in Time Series Analysis를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창의주도연구 프로그램과 BK21 플러스 사업단이 공동주최하였다. 서울대학교 황윤재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워크숍은 3개 세션

으로 총 6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각 강연은 서울대의 서명한 교수와 이상열 교수를 포함하여 외부에서 초청된 와세다대의 Masanobu Taniguchi, 니가타대의 Junichi Hirukawa, 서울시립대의 최승문, 홍콩과학기술대의 Shiqing Ling이 참여하였다.

SS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ive Justice

2015년 10월 8일과 9일 명동 Ibis 호텔에서 “분배정의에 관한 2015년 SSK 국제회의(2015 SS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ive Justice)”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주최하였고, 연구센터 대표인 주병기 교수의 환영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8명의 강연자가 초청되었다. 구체적

으로 Ronald Jones, Eric Bond, Hajime Kubota, Shigehiro Serizawa, William Thomson, Min-Hung Tsay, Makoto Yano, Chun-Hsien Yeh이 초청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강연자가 이틀간의 행사 기간 동안 강연을 하였다.

Lecture by the co-winner of 2014 Schumpeter Prize 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Capitalism”

2015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2호에서 “Institutions, Innovation and Capitalism”을 주제로 2014년 슘페터상 공동수상자 강연이 개최되었다. 이 강연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한국제도·경제학회가 공동주최하였다.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성섭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강연회는 하트퍼드셔대(University of Hertfordshire)의 Geoffrey

Hodgson 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고, 강연주제는 “Conceptualizing Capitalism”이었다. 뒤이어 서울대학교의 이근 교수가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두 강연이 끝나고 나서, 서울대학교의 홍기현 교수와 강진아 교수가 강연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교수들의 토론을 이끌었고, 이후 강연회가 마무리되었다.

한국경제의 미래



2015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49호에서 동부그룹 유용주 부사장이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강연내용은 세계경제와 국내경

제 상황진단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금융실명제, 미국과 유로존 금융위기 등을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고 대처하였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어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교수수상 및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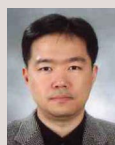
김소영, 조성진 교수 경제학부 신임 부학부장



김소영 교수 조성진 교수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간 각각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던 김봉근, 이철인 교수에 이어, 2015년 8월부터 김소영, 조성진 교수가 각각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맡게 되었다. 김소영 교수는 1996년에 미국 예일대(Yal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09년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 화폐, 국제금융 및 금융 분야이다. 조성진 교수 역시 2002년에 미국 예일대(Yal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08년에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조직론이다.

김진우 교수 제4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우리 학부의 김진우 교수가 '제4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1회부터 작년 제3회까지의 수상자로 우리 학부의 이석배 교수, 이지홍 교수, 홍재화 교수가 선정되었고, 올해도 우리 학부의 김진우 교수가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진우 교수는 기업들의 담합이나, 경매, 매칭 등 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학

적 모델로 제시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젊은 학자로 평가받았다. 김진우 교수는 최근 세계 최고 경제학 저널인 'American Economic Review'와 'Econometrica'에 연이어 논문을 게재해 한국 경제학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지순 명예교수,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



우리 학부의 이지순 명예교수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제6기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지순 명예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거쳐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조성진 교수 승진



우리 학부의 조성진 교수가 2015년 9월 1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했다. 조성진 교수는 1995년에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에 미국 예일대(Yal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성진 교수는 2008년에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경제수학, 산업조직론, 산업조직론 연구, 실증적 산업조직론특수연구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교수 신규임용



이정민 교수

홍석철 교수

박용웅 교수

이정민, 홍석철, 박용웅 교수(사진 좌측부터)가 2016년 3월에 각각 경제학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정민 교수는 본교 경제학부에서 학사학위(1996년)와 석사학위(1999년)를 취득한 후, 2004년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및 실험경제학이다. 홍석철 교수도 본교 경제학부에서 학사학위(2000년)와 석사학위(2002년)를 취득한 후, 2007년에 미국 시카고대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서양경제사 및 보건 의료경제학이다. 마지막으로 박용웅 교수 역시 본교 경제학부에서 학사학위(2000년)와 석사학위(2005년)를 취득한 후, 2011년에 미국 프린스턴대 (Princet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 국제금융, 계량경제이다. 부임 첫 학기인 2016년에 1학기에 이정민 교수는 학부에서 '노동경제학'을, 홍석철 교수는 학부에서 '보건경제학'을, 박용웅 교수는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연구'를 강의할 계획이다.

학생 수상소식



서울대 경제학부 소속 동아리인 LES(서울대학교 법경제학회, 12기 최동준(회장) 외 22명, 지도교수 : 이상승 교수)가 지난 2015년 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제 14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주)지플릭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본 대회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 대학(원) 9개 팀이 참가했다. 각 참가팀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가 문제될만한 사건을 직접 구상한 뒤 이를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을 발표한다. 각 팀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의견서 등의 서면과 경연 당일의 발표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된다. LES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장제행위를 구성하여 경연을 펼쳤고,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시장분석과 경제분석을 잘 활용했다는 공정위의 평가를 받았다.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2015년도 중간평가 1위]

우리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은 지난 2년간(2013년 9월 1일~2015년 8월 31일)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교수 신간 안내

한국의 경제 발전 70년



이제민, 안국신, 김경수, 전주성, 김대일, 송의영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년 11월 30일 출간)

광복 후 70년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다. 그 토대가 된 경제성장은 큰 성공이었으면서도 굴곡진 과정이었으며, 경제발전의 다른 여러 측면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 책은 성장, 분배, 금융, 재정, 노동,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70년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한국 경제의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1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외8명 지음
진인진 (2015년 7월 29일 출간)

통일학연구서 시리즈 제1권 '개성공단', 10년간의 개성공단의 운영 경험을 "공간평화"와 "작은통일"의 시각으로 정리한 사회과학 학술서다. 개성공단의 정치적 의의를 다른 장으로서 남북 협상과정과 쟁점, 개성공단 설치에 관련된 법제도 문제, 개성공단과 안보 및 평화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안상훈, 김병연, 장덕진, 한규섭, 강원택 지음
21세기북스 (2015년 10월 26일 출간)

'성장만으로 더 이상 '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복지정치의 두 얼굴'은 정치권과 언론계,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해야 할 한국형 복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책이다.

화폐와 금융의 역사 연구



양동휴 지음
해남 (2015년 10월 22일 출간)

화폐와 금융의 역사를 연구한 책입니다. 화폐금융사의 연구 동향, 16세기 영국 가격 혁명의 재조명, 복본위제 탄생, 16-19세기 귀금속의 이동과 동아시아 화폐 제도의 변화,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008년 위기, 2007년-2009년 국제 금융 위기의 역사적 조망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론 11판



정운찬, 김영식 지음
윙크출판사 (2015년 8월 13일 출간)

이번 개정판은 거시경제학의 발전과정에 부합하는 '장기적 경제성장' → 단기적 경기 변동·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추가 · 보완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이후 재정장 · 저물가 및 장기정체론, 과다부채, 소득불평등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의 여건 변화와 주요 거시경제현상의 분석에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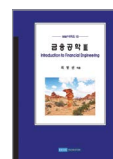
남북한 경제통합 : 전략과 정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
이장로, 김병연, 양운철 공편
한울 (2015년 11월 20일 출간)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도 커다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통합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 또는 10~20년 동안 남한 경제는 상당한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시나리오의 주된 결정 요인은 북한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학계, 사회의 책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의 효과에 따라 북한 충격의 편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북한 사태가 급변해도 남한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이행시키고 남북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에 소개된 다섯 편의 글은 이 같은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쓰였다.

금융공학 3: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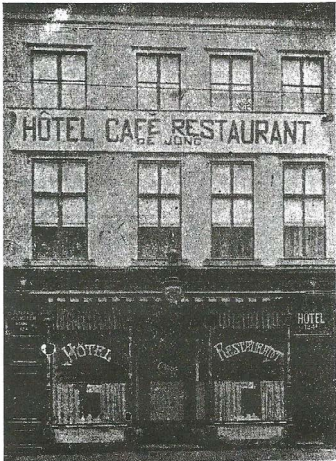
최병선 지음
김구재단 (2015년 11월 15일)

세계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파생상품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금융파생상품도 상품이므로, 거래하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금융파생상품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하거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금융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사용해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학문이 금융공학이다. 우리가 세계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금융공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본서의 원고를 작성했다.

2015년에 바라보는 108년 전의 헤이그

류 근 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열사가 순국하신 당시 호텔 (1907.7.14.)



De Koreaanse delegatie verblijf in Hotel De Jong, Wagenstraat 124, waar Yi Joon op 14 juli 1907 dood werd aangetroffen. (Foto in: Adresboek van 's-Gravenhage, 1907-08).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 역사문화 영토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유럽 유일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매사에 순서가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실의 해석일 게고 마지막으로 해석의 재해석일 게다. 역사 또한 무엇이 다르랴. 최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상반된 해석을 재해석하기는 더 어렵다. 역사적 현장을 하나라도 더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하는 게 보다 의미 있는 일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시내 빈네펠프 광장에 위치한 리더잘(Ridderzaal), 현재 상원국회의사당 건물로 사용되고 매년 가을 국왕의 연례 연설이 열리는 네덜란드의 상징적 건물이다. 108년 전 대한제

국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은 이준, 이위중, 이상설 세 분의 헤이그 특사는 바로 이 건물에서 문전박대의 서러움을 당했다. 2015년 가을에 찾은 리더잘의 모습은 고풍스런 유럽 고딕양식의 건축미를 뽐내고 있었다.



이준 평화 박물관

1907년 여름 세 분의 이 트리오 오는 기올어가는 대한제국의 처지를 세계 열강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장으로 향했다. 대한제국은 회의를 소집한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초청은 받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정작 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세 분 특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거나 회의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대한제국의 입장을 하나라도 더 알리는 것 밖에 없었다. “왜 우리를 배제하는가.” “1905년의 을사늑약은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다.” “힘이 곧 정의인가”라며 세 분은 호소와 항변을 오가며

대한제국의 입장이 열강에 조금이라도 전달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세 분의 노력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회의장을 취재한 만국평화회의보에 소개되었다. “축제 때의 해골,” “무력이 세계를 지배했고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배할 거다”라는 역설적 표현 등이 만국평화회의보에 등장했다. 당시 세 분의 만 나이는 차례대로 48, 37, 20 이었고 직책은 평리원 검사, 전직 의정부 참판, 주러 공사관 직원이었다.

만국평화회의보의 편집장이던 영국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는 프레스 컨퍼런스에 앞서 세 분 특사를 소개하며 한 마디 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후반 십 분의 일밖에 안 되는 인구로 숨을 데라고는 전혀 없는 평지에서 강대국 스페인에 맞서 싸워 독립을 이루었다. 이에 비하면 당신네 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이나 되고 산악지대가 많아 숨을 곳이 많은데도 허무하게 일본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무의미하게 무력으로 항거하지 말고 일본이 강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대신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훗날 무기를 사 일본에 대적하라”고 타이르듯 충고했다. 고마운 충고인지 귀찮다는 타박인지 모르겠으나 세 분은 이런 통과의를 거처 대한제국의 입장을 호소할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준 열사는 우리나라 최초인 한성법관양성소의 제1회 졸업생이다. 순국 후 언젠가 대한민국 검찰총장 명의로 한국 제1호 검사증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한성법관양성소를 서울법대의 전신으로 간주하여 관악캠퍼스 법대 건물 앞에 이준 열사의 동상을 세워 기리고 있다. 이상설은 과거 급제 후 의정부 참판을 역임했고 1905년의 을사늑약 체결 이후엔 재야에서 고종황제에게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상소하였다. 이 위중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19대 후손으로 당시 대한제국의 러시아 공사를 지낸 이범진의 아들이다. 당시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외국 기자들 앞에서 대한제국의 호소란 제목으로 연설했다.

2015년 11월의 헤이그 방문 전까지 나는 세 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헤이그 소재 한 박물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다. 1907년 세 분 헤이그 특사는 헤이그 체류 시 소박하고 오래된 건물인 Hotel De Jong에 머물렀다. 이 건물은 현재 헤이그 시내 China Town 인근에 Yi Jun Peace Museum으로 명칭이 바뀌어 보존되어 있다. 한때 철거될 수도 있었다는데 네덜란드에 40년 가까이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부부의 노력에 의해 보존되게 되었다고 들었다. 이기항! 서울대학교 상대 경제학과를 1956년에 입학하여 1960년에 졸업한 분이다. 그는 국내 한 무역회사의 로테르담 지점에 근무하게 되면서 네덜란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은퇴 후에는 이화여고 교사를 지낸 부인과 함께 사재로 Hotel De Jong 건물을 매입, 이 건물에 1995년 Yi Jun Peace Museum을 개관해 지금까지 자료 수집 및 운영을 담당해오고 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부부는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매일 같이 60km 떨어진 암스테르담과 헤이그를 오가며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

이기항 동문은 현직일 때는 우리의 수출 역군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했고, 은퇴 후에는 역사적 현장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또다시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 지키고 가꾸는 이런 훌륭한 동문을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 Yi Jun Peace Museum, 동문 여러분과 국민 누구라도 네덜란드에 가게 된다면 꼭 들러보기를 권한다. 여전히 박물관을 지키고 계실 노부부께 감사의 인사라도 드리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기항 1956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입학, 1960년 졸업.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주. 이준 아카데미 원장

* 이준 평화 박물관 <http://yijunpeacemuseum.com>, yijunpeacemuseum@gmail.com, Wagenstraat 124A, 2512 BA, The Hague, The Netherlands



이브 게론 교수

Five years ago, I could not have fathomed the idea of being an economics professor in Korea – I barely knew anything about the country. So what happened?

Let me first briefly explain how I came to be an economist. In

France, education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until the age of 20: in high school, you can choose between literature, social sciences or natural sciences. I chose natural sciences, with an emphasis on mathematics, as this traditionally opens the most doors.

After high school, it is typical for students to go to a “prépa” for two years, and then to an engineering school for three years. In prépa, I studied mostly mathematics and physics.

Mathematics classes were much harder than in high school, but also much more interesting. I believe prépa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of my education, as it taught me logic and rigor, qualities that are required in every field of work. My nostalgia for prépa makes me believe that economic students should do more mathematics in their first year of university.

After two years of prépa, I had to take exams to enter engineering schools. The importance of those exams is similar to the college entrance exam in Korea, but last over a few weeks as different group of schools offer different exams.

It is also the time when French students need to make a real choice, as different engineer schools offer various specializations. I chose a school specializing in statistics, ENSAI, mostly because I was not very fond of physics and engineering.

At ENSAI, I had my first classes in economics. While I did not understand why my micro teacher kept talking about quasiconcavity, I was passionate about my first macro class, so much that it was decided, I would become an economist and work 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OECD, or a central bank. I was still a long way from Korea and my current field of research.

I decided to take evening classes to get a bachelor in economics while at ENSAI, after which I did a masters the LSE.

This was my first time living abroad.

The courses were difficult, but London was fantastic. So much that I decided to spend another six years there – working as a consultant and then doing my PhD at UCL.

I could talk at length about London, its beautiful parks and gardens, fantastic museums, Victorian houses, pubs and fish and chips restaurants, but I will try to talk a bit about economics.

When starting my PhD, I did not really know what field to specialize in. I had worked as a consultant for two years, but I wanted to do some theory. I was randomly matched with an advisor doing repeated game theory, and he started to teach me the field.

The central idea behind repeated game theory is relatively simple: if two parties interact only once, they have no incentives to cooperate. One will do what is best for herself, which is to behave myopically. This can have bad consequences for both parties.

For example, two colleagues working on a joint project might both put in low effort, hoping the other one will put in the hard work. The outcome is an output of poor quality and little value.

If, however, this interaction occurs frequently, both parties will now have incentives to cooperate and put in effort, producing an output of high quality which is valuable. Incentives comes from the fact that if one puts in low effort today, he will be punished tomorrow because his colleague will stop putting in effort.

This ca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many “real life” examples, such as environmental cooperation or antitrust analysis.

While this idea that repetition enhances cooperation is relatively simple, the theory behind it is less straightforward, especially when parties cannot perfectly monitor each other's actions.

Nonetheless, the celebrated (at least among repeated game theorists) “folk theorem” shows that in many different and complicated situations, cooperation is feasible, provided that there is sufficient information.

The folk theorem, however, remains mostly silent on how cooperation occurs. It might be the case that cooperative schemes involve very sophisticated rewards and punishment, and might be too complicated to follow in real life. An interesting area of research in this field is therefore to focus on strategies and behavior, rather than

payoffs.

Having finished my PhD in August 2013, I arrived in Sogang University as an assistant professor. I knew very little about Korea, but the faculty at Sogang made me feel very welcome and helped me to get acquainted with the country. In general, I always found Koreans to be very welcoming and tolerant towards me.

In an effort to adapt, I decided to trade my milk and cereal breakfast for rice and kimchi. It was a bit intense at first, but I enjoy Korean cuisine very much and find it very healthy. My favorite dish is probably 김치찌개.

I also studied Korean and was delighted to find out the Korean alphabet is very easy to read and the grammar, at least at the very beginner level, is quite simpl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me to speak and I lack practice, so if you ever visit my office you can always try to teach me a word or two.

At Sogang, I taught undergraduate game theory and mathematics, and graduate microeconomics. At SNU, I taught undergraduate microeconomics in the last semester, and will do so again this semester.

I have always found Korean students to be hard working and diligent, perhaps even too much due to the very competitive job market situation in the country. Grades are very important here, much more than what I experienced in France or in the UK.

In France, for example, the grading scale is done out of 20, and grades between 14 and 16 are considered “good”, while grades above 16 are considered “very good”, and can be quite rare – in high school only ten percent of students graduate with an average above 16, and this percentage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the last 40 years.

Despite this intense competition, I hope that Korean students can find time for sports and leisure. In fact I believe leisure is important for studying, as the brain also needs some rest. Nonetheless, they should do that after having studied for my micro class!

Academic and professional caree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2013 – 2015
- PhD, Economics,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3

Stanley Kubrick and Paul Klee



김유리 (석사 2학년)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30일에 저는 오랜만에 서울시립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친구가 '스탠리 큐브릭전'을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여 말 그대로 정말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술 전시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서울 시립미술관이나 특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들은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꼭 가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스탠리 큐브릭'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라며 가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다음 날 바로 다녀왔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이 영화감독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감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찍었고, 무엇 때문에 저명한 영화감독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미술 전시는 '반고흐전', '샤갈전',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 '오르세 미술관전' 등과 같이 화가나 화풍 혹은 외국 특정 미술관의 미술작품들을 주제로 하는 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감독을 주제로 하는 전시는 어떻게 특히 무엇을 전시해 놓았을까가 가장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2013년 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팀 버튼 전'이라는 영화감독 팀 버튼에 관한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팀 버튼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굉장히 흥미 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영화 감독'에 관한 전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림 전시가 상당히 많았는데 팀 버튼의 영화들 중에서 아무래도 만화적 요소를 포함한 영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은 팀 버튼과는 다른 성격의 영화감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시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역시 보통의 미술전시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영화감독이 찍은 영화의 영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스탠리 큐브릭이 누구인지 몰랐던 저도 이 영화감독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간의 배치와 구성을 시대 순으로 영화 별로 완전히 다르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리 큐브릭이 초창기에 찍었던 영화는 주로 전쟁에 관련한 영화였는데 이런 영화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시될 때에는 '전쟁'이라는 주제와 어울리게 어두운 녹색, 어두운 자주색 같은 색이 벽에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반이 쯤 찍은 <올리타>라는 영화가 소개되는 공간에서는 해당 주제에 알맞게 분홍색과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또한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 라는 SF영화는 정말 우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흰색 벽과 거울들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의 구성 덕분에 정말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사람의 영화 인생의 일대기를 쉽게 공감하며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제작한 영화에 반영한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이 감독의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점은 바로 '구도'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도 구도를 중요시하여 그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영화감독은 촬영을 할 때 구도를 굉장히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봤던 영화들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구도라 매우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위적일 수도 있는 구도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스탠리 큐브릭'전에서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팀버튼전 때와는 다르게 카메라나 렌즈 잡다한 메모 종이 같은 것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 카메라들과 렌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입장에서는 이 카메라와 렌즈가 뭐가 특별하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스탠리 큐브릭이 한 메모라는 설명이 있어 보니 소선택에 줄이 딱 한 줄이 그어져있는 식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미술관에서 기대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 전시물들이 미술관에서 기대하는 요소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미술전시에 관한 틀을 깨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술전시관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여행을 가더라도 꼭 그 도시의 미술관을 가보는 편입니다. 학부 시절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많은 도시들의 다양한 미술관들을 가봤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미술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미술관은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 위치한 Zentrum Paul Klee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Zentrum Paul Klee은 화가 Paul Klee를 기념하는 미술관 혹은 박물관입니다. 파울 클리는 스위스 화가로 그의 작품은 표현주의,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예술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친구인 러시아 화가 칸딘스키는 예술과 건축의 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베른 자체가 별로 큰 도시가 아니라 '베른에 위치한 미술관'이라는 설명을 보고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Bern Bahnhof 앞에서 머리에 'Zentrum Paul Klee'가 종점이라고 쓰여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5분이면 가졌던 제 생각과는 달리 버스를 족히 20~30분은 탔던 것 같습니다. 베른의 웅만한 외곽 지역도 트램을 타고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사실 베른에 위치해있다고는 하나 베른의 구시가지 중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필 그 버스의 종

점이 바로 'Zentrum Paul Klee'여서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던 버스가 텅 빌 때까지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같이 내린 사람들 뒤를 따라 짧지 않은 거리를 1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기간이었는데, 연두색의 풀들과 내리쬐는 햇빛이 정말 기분 좋고 싱그러웠습니다. 처음 미술관을 봤을 때는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크다'였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미술관들을 가봤지만 그만큼 건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고 규모도 상당한 미술관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베른에서 오래된 건물들만 보다가 상당히 현대적인 건물을 오랜만에 보게 되어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의 규모에 비해, 당시 제가 봤던 전시의 규모는 다른 미술관들 예를 들면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나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건물 규모 자체는 어느 미술관에 비하더라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 미술관의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는 다양한 전시를 동시에 하는데 지금은 특별전이 준비단계이고 다음 달에 전시를 시작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뿐만 아니라 콘서트 홀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작품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간 것은 아니라 그냥 '괜찮다' 지금 볼 수 있는 전시의 표를 달라고 했지만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본 전시는 여러 분리된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주로 현대 미술 작품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관들처럼 특정 기간에 특정 주제로 하는 전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미술관 측에서 보관 중에 Paul Klee의 그림들이 상설 전시 형태로 전시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aul Klee 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의 작품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시되어있었던 그림들이 제가 좋아하는 풍의 그림들이라서 굉장히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미술관들 중에서 베른의 파울 클리 센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처음으로 혼자서 간 미술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하는 여행을 즐겨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편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항상 친구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 곳은 같이 다니던 친구가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전시였음에도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베른에 가는 날에는 꼭 다시 방문하여 다른 전시들도 보고 싶듯이 다른 분들도 혹시 스위스 베른에 가시면 Zentrum Paul Klee에 꼭 가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관적 경험의 예술적 고고학

Berthold Brecht, Die Dreigroschenoper 베르톨트 브레히트, 『서푼짜리 오페라』



권용석 (학부 15학번)

팔자소관(八字所管)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운명의 종착역이 사주팔자대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다. 먼 훗날 땅으로 돌아가 눕는 자리까지 호텔 스위트룸이 될지 길바닥이 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사가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때로는 실패에 대한 위로로, 때로는 도전을 감행하는 무모함으로, 때로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우리들 삶의 행동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만약 인간 개인의 운명이 이렇듯 팔자소관으로, 숙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들이 이루어 살고 있는 사회 또한 나름대로의 '팔자소관'으로 그 운명이 정해져있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팔자소관'은 대관절 무엇인가? 인간 사회의 그 궁극적 종착역과, 그 보편적 목적의 방향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오래도록 자본주의 문명의 발전은 인간 사회의 명백한 운명과도 같이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명의 맹아를 자생적으로 싹틔운 국가들은 큰 성공을 거두며 '문명인', '개화인'이라는 선구적 지위를 획득하였고, 그 팽창 과정에서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국가'들의 국민들이나, '문명화된 사회에 적응을 실패한 인간들'은 마치 야만인이나 무지한 인간쓰레기와도 같이 경멸받았던 것이다. 바야흐로 단 하나의 근대성(The Modernity)의 출현이었다.

발달 이전 봉건적 신분사회에서도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경멸, 차별, 무시가 없었겠느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이전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새로운 사회에서 개인은 형식상으로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받고, 따라서 능력만 있다면 타고난 신분과는 관계 없이 누구나 '재능'에 따른 출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전 사회에서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계층들이 사회적 변혁 이후 '자수성가', '재능'에 따른 출세를 이루어 낸 사례들은 각 사회마다 전설처럼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제 가난은, 낮은 계급적 지위는, 더 이상 그 생물학적 면죄부를 받지 못한 까닭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갔다. 가난한 노동자, 거지, 범죄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금욕, 성실과 같은 덕목들을 저버린 '모자란 인간의 취급'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지배층의 가치들은 '덕목'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의 합리적이고도 기독교적인 덕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브레히트는 자본주의가 그 승리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빅토리아시기의 영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사회의 '승리자들의 덕목'을 내면화한 하층민들의 생활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덕목'이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자기 분열적이며, 심지어 위선적이기까지 한지를 풍자한다. 거지들을 통솔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갈'로 동정심을 일으키게 해 구걸하는 사업을 운영하는(거지들의 친구)회사 사장 피침은 인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연민의 감정조차 돈으로 치환하여 사업하는, 자본주의적 인물이다. 가히 '벼룩의 간'이라도 내어먹으려 고군분투하는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형의 전형으로서, 심지어는 자신의 딸인 폴리카까지도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 그 가족적 유대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는 인물이다. 궁극적으로 폴리카와 맥의 결혼을 막으려 동분서주하는 것 또한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에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걱정을 우선시한 행위들이다. "내 노년의 마지막 자금원인 내 딸을 쥐버리면 우리 집은 망하고, 내 마지막 충군까지도 도망칠 거야. 공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손톱 밑의 때라 하더라도 줄 수 없지."(55)와 같은 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피침이 폴리카와 맥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그의 사업에 대한 이윤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를 위해서 맥을 교수형 시킬 계획을 세우고, 창녀들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 거지들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의 가장 내재적 가치인 생명, 또 더 나아가 그 감정과 인격에 이르기까지도 '이윤 추구'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당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소위 '자본주의적 덕목'들, 즉 당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당연시되고, 신봉되었던 여러 가치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산을 많이 모으려면 '근면'하고, '절제'하며, '금욕'해야 한다는 등의 당대의 '근대성'과 '진보'의 개념과 동치 되었던 많은 정신적 가치들—특히 이러한 것들 중 상당수는 브레히트가 작품을 집필하였던 1920년대,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회의 덕목들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 어디까지나 물질적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브레히트에게 비친 물질적 축적은 '피침식 정신'의 산물이지 결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정신'의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분열, 위선, 자기부정 등의 사회적 병폐는 '창녀'라는 극적 배경과 인물들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성의 노예'에 관한 발라드에서 피침 부인의 노래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성정에 매달리지, 그는 법전을 개선하지, / 남 자라면 기독교인, 유대인은 무정부주의자! / 점심때는 쉼터리를 자제하고 / 오후에는 이념에 자신을 바

치지. / 저녁에는 이렇게 말하지, 나는 점점 고귀해지네. / 하지만 밤이 오기 전, 다시 올라타고 있지."(74) 당시 사회의 금욕적 가치와 인간 본성의 억압할 수 없는 욕망, 이 두 가지 상반된 구조가 '매음굴의 창궐'이라는 기형적인 공간을 낳았다. 이러한 공간에서 배신의 연속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은 필연적인 그 사회적 결말인 것이다.

올드 베일리 형무소의 감방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무결해야 할 사법 심판의 공간조차도 사익 추구의 장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죄수 맥과 교도관 스미스는 돈을 통해 수감의 종류를 거래하고, 오랜 친구였던 브라운과 맥의 끈끈한 우정조차도 브라운은 자신의 이해관계로서, 또 맥은 루시와의 숨겨진 관계로서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맥은 더 나아가 루시와 폴리카의 연애에서 자신의 부인인 폴리카를 배신한다.

맥이 도망간 사실을 알자 브라운에게 가해지는 피침의 위협 또한 이 작품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피침은 그 사업에 예측된 1432명의 거지들을 동원해서 여왕의 대관식을 휘방 놓겠다고 협박한다. 그 무시무시한 연대의 힘 앞에 공권력을 가진 브라운조차도 차마 그를 체포하지 못한다. 피침은 "한 가지만 말하겠소, 영국 여왕에게는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소, 하지만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브라운은 끝장날 거요, 브라운 씨."(109)라고 위협한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하층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상징적 존재, 또한 공권력이라는 존재를 위협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당대 사회주의 지식인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 아니할 수 없는 사회적 대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매우 드물게 일어났고, 심지어 그러한 사건들은 거의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랬다면 왜 그랬던가? 그것은 하층민들이 비록 그 지배계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가 많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자본주의적 가치를 경멸하는 이들 사이에서조차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그 연대가 결렬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 희곡에서 피침을 필두로 한 연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하층민들의 연대조차도 '사업'이라는 이해관계에 묶인,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고용주로서의, 자본주의적 사업가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피침이라는 인물에 포도송이처럼 그 열매를 맺을 가치들이 다 닳다 닳아 붙어있는 형태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을 비단 사회혁명의 좌절을 노려한 마르크스적 비극의 서사로 보아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우습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현실적 면모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비극이면서도 희극인, 문학의 모순적 예술이라는 인상을 지울 길 없다. 사회 현상은 때론 이렇



게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씹씹하면서도 재미있는 주제들을 선사하곤 한다.

교수형 직전 ‘매키스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발라드’는 당대 ‘몰락하는 계층을 대표하여 몰락하는 인물의 주관적 경험을 잘 드러낸다. 맥이 누구인가? 그 역시 이윤추구를 위해서 밤낮없이 동분서주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성당 가듯 매음굴에 출석도장을 찍으며, ‘치먹고 나서야 도박’을 역설하는 인물이 아니던가? 그는 철저히 ‘자본주의적 생존 방식’만을 내면화하였을 뿐,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일체의 허위적 덕목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인물이다.(물론 마구간 결혼식 장면에서 그러한 양태가 맥에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모습이 폴리를 의식하였기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맥이 위급한 상황에서 폴리를 잡고서 사임을 넘겨주는 부분이나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매춘 사업장을 드나들었다는 것에서 그 성격을 상당 부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맥은 마지막으로 ‘경솔한 사내들을 낚아채려 가슴을 드러내는 처녀들, 타락의 대가를 가로채려 눈독을 들이는 사내들, 비렁뱅이들, 창녀들, 투쟁이들, 게으름뱅이들, 무법자들, 살인자들, 변소 치는 여편네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개놈의 경찰들’, ‘먹을 거라곤 나무껍질만 주었던 그들’이라고 일축한다. 여기서 우리는 부도덕한, 즉 어떠한 덕목의 가치들도 내면화하지 못한 하층민의 주관적 경험을 엿볼 수 있다. 맥의 파멸에 결정적 인과관계의 고리를 건 이는 누구인가? 그의 장인인 거지 사업가 피침, 그리고 그 부인에게 사주를 받아 맥을 배신한 창녀들이 아니던가? 그런데 맥은 외려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무법자, 살인자, 창녀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마지막까지 그가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던 경찰권력, 그가 오래도록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탁했던 세력들에게는 ‘개놈’이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이를 가지고 맥이 배신당하고 또 배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식의 경제 결정론적 해석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랬던가? 이는 맥이, 더 나아가 그로 대변되는 작품 전체의 시각이 이러한 교수형의 근원적 원인을 제대로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이

해는 하층민 간의 부도덕한 행위, 가치 부재의 뿌리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엄한 자본주의적 생존 질서가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통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그래 인간적인 것,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어!”(64), “우리는 아비한 대신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 그렇지 않아.”(64)라는 인간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첫 번째 서훈짜리 피날레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회적 주제는 무엇인가? 이는 결코 하층민들의 부도덕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구조적 해석으로 돌림으로써 미화하거나 온당한 것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한 주제 의식을 설파하려 작가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더욱 로망스적이고 영웅적인 서사로 하층민들을 그리고, 그 악의 축에 자본가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더욱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지, 강도, 매춘부의 문제는 온전히 구조적 문제로 면죄부를 작성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개인의 가치 부재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E. P. 톰슨의 말처럼 ‘후대의 오만한 편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작품의 사회적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가장 리얼하지 않은 기법으로 하층민들의 주관적 삶을 리얼하게 복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할 수는 없다. 이는 새로운 사회의 영향을 ‘승리자’와 ‘패배자’로 양분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도 자체가 현대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문학은, 역사는, 또 우리들의 사회는 결코 패배자들의 ‘한풀이’의 장이 아니며 또 그렇게 의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작품은 불림 곳, 살풀이의 장이 될 수 없다. 주관적 경험의 예술적 복원,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수많은 무덤 속 인물들을 ‘왕의 사자나’ ‘세속 귀족’마위의 비현실적이고 낯선 결말이 아니라 브레히트가, 또 그를 읽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필자의 브레히트에 대한 사유는 아직 그것을 섣뎠

내용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 더욱 솔직히 고백하건데 비단 브레히트뿐 아니라 사회의 불의에 대한 모든 선 목소리를 나는 경계하고 있다. 시인 브레히트는 이렇게 변명한다. “신발보다도 더 자주 나라를 바꾸면서 / 불의만 있고 분노가 없을 때는 절망하면서 / 계급의 전쟁을 뚫고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느냐”.

어쩌면 사회혁명에 대한 끊임없는 미련은 그 자신의 세대적 한계인지 모른다. 경제체제로서도 정치체제로서도 사회주의는 완패했다. 사회혁명과 사회주의 이상의 건설은 실패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브레히트를 읽는가? 왜 우리는 아직 브레히트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의 세대적 한계—내 주변의 함께 울고 웃던 수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순식간에 파시스트로 돌변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은 오로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그 세대적 한계—에 연민을 느끼고 있는가?

사회 혁명은 어디까지나 커다란 희생을 수반한다. 그것은 성공하였을 때나 실패하였을 때나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러시아 혁명에서, 후자의 경우를 파리 코뮌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이후의 역사는 혁명이 목표로 하였던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 그 자체의 불신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혁명이 끝난 후 도래한 것은 낙원이 아닌 또 다른 분열과 대립과, 끝나지 않은 희생의 사회였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시, 우리는 왜 오늘날에 민주주의를 역설하는가? 이상의 부족한 논의에서 살폈듯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투명하고도 커다란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나치와 파시즘도 낳을 수 있으며 공산주의 정권도 낳을 수 있다. 정의로운 세계를 잉태할 수도 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지옥과도 같은 사회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마티아 센의 말처럼, 성숙한 민주주의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동시에 그것은 불평등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시대는 변화하였다. 우리는 자본의 시대의 유전자를 받았으나 그 부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국면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제르미날』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대목을 다시 전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중은 지도받지도, 계몽되지도 않는다. 대중들은 자신들 간의 빠른 소통과 다른 의견 간의 대립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숙시킨다.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그래서 서정시를 쓰기에 어려운 시대이다.

SFERS 소개 (www.sfers.com)

1. 동아리 및 지도교수님 소개



• 동아리 소개

SFERS는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서울대학교 금융 & 경제 연구 세미나)의 약자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경제·금융 학술 동아리입니다. 2000년 11월 16일에 설립된 SFERS는 2016년 현재까지 매 학기마다 각종 경제이론과 지식들을 기반으로 현실경제의 여러 현안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SFERS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들 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금융 및 경제 전문가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미나와 같은 학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만남·LDT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제 간, 선후배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미래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FERS는 경제학부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 소속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회원들은 모두 경제·금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공모전과 경시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소 3학기로 되어있는 의무 활동 규정을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부기관, 금융권 공기업 및 사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FERS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 외에도 서울대 외의 국내 대학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수의 대학들과 더불어 연합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동경대학 Yoshikawa 세미나와 연합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11월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

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 대학 등 여덟 개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한국·일본 학술 세미나에도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님 소개

SFERS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황윤재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을학기부터 SFERS의 지도를 맡아주시고 계신 황윤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계량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SFER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연구에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다.



2. 동아리 활동

• 정기 세미나

SFERS의 회원들은 매학기 지원을 통해 팀을 결성하며, 팀별로 금융 및 경제와 관련한 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연구·조사회동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학기 중 두 번에 걸친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는 SFERS의 가장 큰 행사로써, 이러한 정기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각 팀별 주제들에 관한 경제·금융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연구에 사용된 경제학적 직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분석 기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기세미나를 통해서 SFERS는 궁극적으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교수님과 회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시간과 사후 리뷰 세션 등을 통해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연구방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정기 세미나의 장점입니다.

• 대외 세미나

SFERS는 정기 세미나 이외에 대외적으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국내대학을 비롯하여 일본의 여러 대학들과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대학 등 여덟 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한국·일본 학술 세미나(8개 대학 연합 세미나)에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참

여하는 연합 세미나와 동경대학 Yoshikawa 세미나와의 연합 세미나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새로운 학문적 자극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참가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 멘토링,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SFERS를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주로 대학원, 해외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금융권·사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멘토링은 이러한 휴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회원들이 이수한 졸업회원들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각각 한 번씩 활동회원들과 이수한 졸업회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SFERS의 인연이 동아리 이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LDT, 소풍 및 체육대회

SFERS에서는 매 학기마다 MT 형식의 LDT(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신입회원들과 기존 활동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소풍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에만 치우치지 않고 회원들끼리 친목도모도 할 수 있고 체력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신입회원 가입 안내

SFERS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학부에 3학기 이상 재학하였고 앞으로 3학기 이상 SFERS에서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동아리홈페이지(www.sfers.com)이나 sfers.recruiting@gmail.com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 사업단은 2015년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 김태성 기념 세미나 15회
- ▶ 경제사 워크숍 11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8회
- ▶ 실험 사회과학모임 5회
- ▶ 단기해외연수지원 2회
- ▶ 국제 학술대회 1회
- ▶ 특별강연 1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Dmitry Shapiro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Microfinance and Dynamic Incentives

Frank Hüttner (Leipzig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Potential, Committees and Power

황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Housewife, Gold Miss, and Equal: The Evolution of Educated Womens Role in Asia and the US

Oyvind Thomassen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Multi-Product Competition, Shopping Costs, and Market Power: A Model of Supermarket Pricing

Yusufcan Masatlioglu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Random Attention Model

Netjat Anbarci (Deakin University)
Nash Demand Game with Endogenous Continuation Probability

임우영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Identifying Higher-Order Rationality

이상훈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Natural Amenities, Neighborhood Dynamics and Persistence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Income

SangMok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Optimal Dynamic Matching

Kazumichi Iwasa (Kobe University)
Indeterminacy in a Model with Production Externality and Inferiority in Consumption

Kazuo Nishimura (Kyoto University)
Growth and public debt: what are the relevant tradeoffs?

Semin Kim (National Taiwan University)
Ordinal versus Cardinal Voting Rules: A Mechanism Design Approach

김세익 (고려대학교)
Private Tutoring, Studying Alone,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Harald Heinrich Nax (ETH Zurich)
A behavioral study of "noise" in coordination games

Claire S. H. Lim (Cornell University)
Dynamic Natural Monopoly Regulation: Time Inconsistency, Moral Hazard and Political Environments

경제사 워크숍

김두일 (명지대), 여인만 (강릉대)
서평모임, 김종현, "경영사: 근대기업발전의 국제비교"
차명수 (영남대)
Do Conflicts Bring Prosperity?

손기태 (건국대)
Men's Keen Ability to Detect Women's Promiscuity

이창근 (한국개발연구원)
Was the Great Depression Cleansing? Evidence from the U.S. Automotive Industry

홍석철 (서강대)
The Socioeconomic Gradient in the Inheritance of Longevity: A Study of American Genealogies

김재호 (전남대)
정부고용의 장기적 변화, 1910-2013 - 공무원의 규모와 구성

양동휴, 임정은 (서울대)
국제통화제도의 난맥상: 고정환율의 끈질김

박이택 (고려대)
The Trade-off between Fertility and Education in Colonial Korea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Towards A History of The Junk Bond Market: 1910-1955

김종훈 (서울대 석사졸업)
한국의 경기변동과 출산결과

배연호 (대구대)
산업별 R&D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김경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한준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xchange Rate, Capital and Monetary Policy: Trilemma Policy Regime and Evaluation at Different Stage of Development

이영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Married Female Labor Supply, Endogenous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Gender Wage Gap: Based on Heterogeneous Agent Model

한준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Cycle time and growth at different stage of development

이종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conomic Growth, Campaign Pledges and Election Outcomes

권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Non-manipulability and Pareto-efficiency of DASO rules in Landing Slot problems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오혜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

허은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 on children

김은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청소년 비만이 파도림에 미치는 영향

권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 on children

도민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 on children

이예스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slave trade and the origins of mistrust in Africa

오종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출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이상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value of democracy

실험사회과학모임

이병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llsberg Paradox: Ambiguity and Complexity Aversions Compared

서기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Media Bias and Reputation

Hyuncheol Bryant Kim (Cornell University)
Selection and Incentive Effects of Financial and Career Incentives on Labor Productivity: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Malawi

이응익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신장 이식 시장에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황영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Market for News (Mullainathan and Shleifer 2005, AER)

학생수상 및 장학금**장학금 수여**

2015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84명 중 224명(전액 장학금 36명), 대학원생 178명 중 44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항상 장학금을 통해 4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258명, 대학원생 9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2015학년도 항상장학금 수여식

2015년 8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12명의 학부생이 참석하여 항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2015년 제14회 김태성 기념장학생 선정

2015년 12월 18일 경제학부 소회의실에서 김태성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재연(박사과정), 이승민, 정제천(이상 학부생)을 선발하여 김태성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류상우(학부생)군을 김태성논문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경제학부는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 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교무 및 학생활동**2015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5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28일(금)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6명의 박사를, 27명의 석사를, 48명의 학사(최우등 11명, 우등 24명)를 배출하였다.

2016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6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37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5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석박통합과정은 석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해 최종 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5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5년 12월 22일 ~ 2016년 1월 25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중국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經友의 밤’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최로 2015년 11월 19일 '경우의 밤'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소속의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사제 간, 선후배 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경제학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장단을 포함한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명이 참석하여 經友의 밤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국제화 추진 현황**2015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Principles of Economics 1
이근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Strategy /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y
주병기	Advanced Microeconomics
이철인	Studies in Labour Economics (Special Issues in Labor Economics)
Jihong Lee	Game Theory and Its Application Market Design Theory and Application
Elias Sanidas	International Economics
Yves Gueron	Reading and Research Microeconomics
Oyvind Thomassen	Reading and Research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Introductory Statistics for Economists

2016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전기 모집

경제학부는 2016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4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총 10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2명의 몽골 학생과 2명의 중국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5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5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이 중 2015년 2학기에 3명이 파견되었고 2016년 1학기에 2명이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이필상(경제학부 겸임교수) 5,000,000원(장학)
- 박성훈(CJ 부사장) 10,000,000원(장학)
- 동부문화재단 40,000,000원(학생 학술동아리 지원 및 장학)
- 경제학부 8학번 동거회 100,000,000원(학술 및 기타)
- ㈜영원무역 150,000,000원(학술 및 기타)
- 세계경제최고전망과정(ASP) 동문 10,000,000원(기타)



81학번 발전기금 수여식

(주)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면에서 이어집니다.)

BK21플러스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단기연수지원(논문발표지원)****이에스더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The 7th Demographic Conference of Young Demographers: Actual Demographic Research of Young Demographers in Europe"에

서 논문 발표**임정은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Asia Pacific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Conference 2016"에서 논문 발표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세미나**국제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 2015 SJE International Symposium "Firms and Innovation in Asia"

특별강연

[BK21플러스 특별강연] 논문작성 및 학술지 투고: 국제학술지 편집인의 시각에서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제 31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92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징

-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2. 동창회 조직:**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제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 | |
|--|---|
| ① 모집인원 40 명 내외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 ② 입학자격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 - Email : asp@snu.ac.kr |
|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 Home Page : http://ier.snu.ac.kr |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주소 : 우)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 ④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ASP 30기 회원명단

- | | |
|-------------------------------------|------------------------------------|
| 1. 강관보 국회사무처 법제실 협력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사관) | 15. 오웅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법인영업본부장) |
| 2.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6. 오현숙 경기도청 복지여성실장 |
| 3. 고석우 신용보증기금 영등포재기지원단장 | 17. 유재광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
| 4.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18. 유한태 DSKY Ventures 이사 |
| 5. 김동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 19. 정영완 삼성증권 상무 |
| 6. 김수재 한국산업은행 경영관리부문 부행정 | 20. 지성구 한국전력공사 품질경영처 공정관리실장 |
| 7. 김승동 CBS 콘텐츠본부 국장 | 21. 최경식 한국기업평가(주) BRM본부 상무 |
| 8.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 22. 최병화 신한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
| 9. 김응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장 | 23. 최양선 해군준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 10. 김주선 SK하이닉스 상무 (마케팅본부 마케팅전략그룹장) | 24. 최영 금융결제원 고객지원실장 |
| 11. 김한일 (주)케이포에 대표이사 | 25. 최재원 KB캐피탈 수석부장 |
| 12. 김희상 BC카드 전무 (마케팅본부장) | 26. 허 중 경원산업관리(주) 회장 |
| 13. 문한식 문한식법률사무소 변호사 | 27. 홍두선 기획재정부 국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파견) |
| 14. 오보열 KB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장 | |



〈ASP 30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